

한국산 어류의 장에서 발견된 소식흡충과 기생충 Cryptogonimidae Ciurea 1933 from the intestine of fishes in the Republic of Korea

- 3회



이재구

수의기생충학 박사, 전북대학교 명예 교수
jkorhee@hanmail.net



김현철

수의기생충학 박사, 강원대학교 교수
adv@s@kangwon.ac.kr

3. 메기腸吸蟲 *Exorchis oviformis* Kobayashi, 1921

이 흡충은 Kobayashi(1921)가 일본 오카야마와 도쿄의 여러 지역에서 메기(*Parasilurus asotus*)의 십이지장과 소장의 앞 부위에서 최초로 발견하여 *Exorchis oviformis* Kobayashi, 1921이라고 명명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Chun(1960)은 경상남도 사상과 김해에서 채집한 각각 5마리씩의 메기의 위와 장으로부터 한 마리당 47마리의 이 흡충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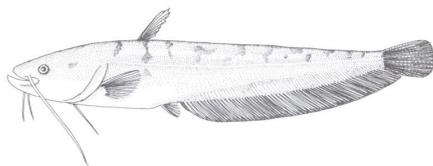


그림 10. 메기의 측면 모식도

메기과(Siluridae)에 속하는 메기(*Silurus asotus* syn. *Parasilurus asotus*)의 길이 30~50cm이며, 유숙이 완만하고 바닥에 진흙이 깔려 있는 하천이나 호수 또는 늪에 서식하며, 밤에 치어나 소동물을 섭식하는 탐식성 어류이다. 5~7월에 수컷이 암컷의 복부를 강력하게 감아서 산란시킨다. 황갈색 알을 수초, 자갈, 바닥에 부착시킨다. 부화 후 1년에 10~20cm, 2년에 20~30cm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담수 영역에서 발견된다.

몸의 크기는 0.2~0.3×0.26~0.28mm이며, 보통 길이보다 나비가 넓은 구형이다. 앞 및 뒤쪽은 둥글며, 전체부는 보통 약간 좁다. 배면과 복면이 압축되어 있다. 자궁 속에 있는 충란들이 육안으로 갈색 점들로 보인다. 각피는 비교적 두꺼우며, 3~4µm이다. 신선한 표본에 있어서 후체부를 제외한 각 피에 밀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각피극들이 있다. 그러나 절편에서는 이들 각피극이 명확하지 않고 표면에서 작은 융기들로서 나타나 있다. 여러 두선(cephalic gland)이 구흡반 근처의 몸의 전단에 있다.

전단 복면에 구흡반이 있으며, 가로 지름 55~77µm이다. 몸의 앞 1/3 부위에 있는 구흡반보다 작은 복흡반의 지름 40µm이다. 양 흡반의 복면은 깊게 들어가 있다. 한 쌍의 둥근 갈색 안점이 몸의 앞쪽 배면 구흡반의 양쪽 옆에 있다. 앞쪽에 중앙색소 반점이 한 쌍의 안점의 약간 앞 또는 뒤쪽에 있다. 성충에서는 이 안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약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개의 색소 과립으로 붕괴되어 나타난다. 작은 인두의 나비는 30µm이다. 인두에 이어진 식도의 길이 10~15µm이다. 식도에서 분기한 장의 맹관들은 처음에 옆으로 나아간 다음 몸의 옆쪽 가장자리를 따라 뒤로 내려가 몸의 후단에서 그치며, 거기에서 정중선 방향으로 나아간다. V-자 모양의 배설낭은 몸의 후단에 열려 있다. 맹관들 사이에 있는 매우 넓은 간들의 앞쪽은 식도의 바로 뒤 부위까지 이른다. ♀

- 다음호에 계속 -